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최선

전주시, 상수도 배수지 일제 청소 · 안전 점검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핵심 시설인 배수지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 청소 및 점검에 나섰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기섭)는 이달부터 총 45일간 총사업비 약 1억 1000만 원을 투입해 전주지역 11개 상수도 사업장 총면적 7만5221㎡(배수지 10개소, 정수장 1개소)에 대한 청소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청소는 배수지 내부 저수조 바닥에 누적된 침전물과 벽면 부착물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수도법에 따라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위생 조치로, 시는 매년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배수지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시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 시설 전반의 면밀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평상시 저수조 담수로 인해 점검이 어려웠던 내부 시설 부분에 대한 세밀한 안전 점검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청소 기간 시민들의 단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지 내 저수조를 구획별로 나누어 청소와 급수를 교대로 실시하는 등 각 가정에서는 청소 여부와 관계 없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배수지 청소 외에도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맑은물 공급사업' 2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는 등 녹물 발생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또 용담호 상수원부터 정수지와 배수지를 거쳐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이르는 과정별 수질 검사를 매일·주간·월간 단위로 철저히 실시하며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기섭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라며 "주기적인 배수지 청소뿐만 아니라 상수도 관망 현대화 및 과학적인 수질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소상공인 · 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전주시, 사용료 · 대부료 한시 지원

전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지원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전주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임대료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시는 현재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사용 종료된 자 또는 사용 예정인 자에게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해 지원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산 쌀 · 가공식품, 뉴질랜드 수출 선적식

전주에서 생산된 쌀과 농식품 가공품이 뉴질랜드로 수출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16일 전주산 쌀 및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선적식을 통해 전주에서 생산된 쌀 10톤과 더불어 누룽지와 배숙식혜 등 쌀 가공식품 2.7톤이 수출돼 쌀값 지지 및 농산물 소비 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간 주로 대만과 동남아시장을 겨냥해 배와 딸기 등 원예농산물을 주력으로 수출해 왔으며, 이번에 뉴질랜드 재오클랜드한인회(회장 홍승필)와 함께 뉴질랜드 현지로 쌀을 수출하게 되면서 현지에 우리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됐다.

특히 이번 쌀 수출은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는 재외동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전주를 찾은 뉴질랜드 재오클랜드한인회 관계자는 "현지 동포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게 바로 햅쌀인데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뉴질랜드에서도 손꼽히는 대축제인 한인의 날에 전주산 햅쌀을 판매하면 많은 동포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간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현지 도착 시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절차가 완화되면서 소포장 쌀의 경우 최대 25kg까지는 증명서 및 검역·훈증 등을 하지 않아도 돼 수출길이 편리해졌다.

우범기 시장은 "정부의 행정절차 완화로 인해 수출길이 편해진 만큼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것"이라며 "고향의 밥맛을 느끼고 싶은 해외동포에게 커다란 의미로 다가올 뉴질랜드 쌀과 가공식품 수출에 대한 현지 반응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다양한 품목이 지원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누리소통망 통한 시민 소통 잘했다

제15회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지자체 시 부문 '최우수상' 수상

전주시는 16일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한 '2025 제15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부문(기초지자체 시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주시가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해 시민과의 소통에 힘써온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됐다.

시는 16일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한 '2025 제15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부문(기초지자체 시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행정 소통을 선도해 온 지자체로, 지난 2017년 이래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매년 빠짐없이 최우수상과 대상을 수상하며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 사례로 꼽혀왔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인 전주의 사계와 명소, 유용한 생활밀착형 시정 등을 감각적인 릴스와 숏츠로 제작해 정보와 재미, 화제성 등에서 단연 돋보이는 콘텐츠들을 선보였다.

특히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는 현장 중심 정책 브이로그와 민원 정보 콘텐츠 등은 시정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정보 제공의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무원 서포터즈와 SNS 시민 홍보단, 시민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재능을 지닌 시민들을 참여시켜 시민과의 소통 확대 및 콘텐츠 다양성 확보에 공을 들였다.

일례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등 특별한 관광 체험 콘텐츠와 '전주동물원 여령이' 같은 현장 취재형 릴스 등은 유용성과 감동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카카오톡 채널의 경우 안전 및 재해 알림 기능은 물론, 생활정보부터 감성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종합 매거진'에 버금가는 풍성한 기획으로 주목받았다.

여기에 전주시 SNS 채널의 산파 역할을 했던 네이버 블로그는 50여 명에 이르는 시민 기자단을 조직해 동네와 이웃 이야기 등 지역성을 강화하면서 시민 호응도를 높였다.

전주시 공식 블로그의 경우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 키워드에 최적화한 제목과 메타정보 설정 등으로 꾸준한 유입을 이끌어 내면서 전주시 SNS 운영의 무게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열려

전주지역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일자리 행사가 열렸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양희옥)는 16일 센터 4층 민들레홀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 성공과 도약을 응원하기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구인·구직 매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생, 여성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센터 내 현장 채용 면접 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전문가 코칭 △이력서·자소서 상담 △취업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됐다.

특히 '직업 도전관'에서는 전주지역 11개 여성 친화기업의 현장 채용 면접 부스가 마련돼 보건·의료, 사회·복지, 사무·조리분야 등 여러 직종의 직원 채용 면접이 진행됐으며, 100여 명의 지역사회 구직자들이 1:1 현장 채용 면접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멘토 코칭관'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맞춤형 멘토링 및 코칭을 통해 △경력 개발 상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이 진행됐으며, '진로체험관'에서는 △타로카드 △지문적성검사 △천연 화장품 만들기 등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양희옥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한자리에서 탐색하며 현장 면접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한 사람의 상담, 한 사람의 훈련, 한 사람의 취업을 소중히 생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로서 여성들의 재도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직원 3명 운영관리사 1급 자격시험 합격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기섭)는 소속 직원 3명이 지난달 환경부가 실시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지난 2020년 개정된 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일반 수도사업자가 상수도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핵심 전문 자격이다.

이번에 합격한 직원은 박이주 수질관리과장과 김춘식 급수과장, 최선경 수질관리팀장 등 3명으로, 최종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기존 팀장급 4명과 통합관제센터 전문관 1명을 포함해 총 8명의 1급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관리자부터 현장 실무 직원까지 상수도 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원수 확보 △맑은 물 정수 공급 △최적의 급수 관리 등 상수도 전반에 걸친 관리에 스마트한 운영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희성 기자